



# 불임의 첫 치료단계, 인공수정

황경진 / 일산자생당 여성병원장

**인**공수정이란 보편적으로 불임의 첫 치료단계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.

원래 인공수정은 남편이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정이 전혀 안되는 경우나 무정자증일 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정액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하던 방법이었는 데 요사이 는 불임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

맨 처음 인공수정을 할 때는 전혀 아무 처치도 않은 정액을 그대로 질 속에 넣어 주었는데 아주 비위생적인 방법이었습니다.

그 결과 균감염의 문제가 일어나고, 제거되지 않은 단백질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문제되고 수정능력도 좋지 않아서 현재는 특수한 배양액을 사용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정자처리를 한 후에 쓰고 있습니다.

**인공수정은 어떻게 하나?**

우선 정자를 채취한 후 실온에서 약 삼십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방치해 두면 자연히 액화되어 물처럼 풀어지게 됩니다. 이때 여러 가지 배양액을 이용하여 원심분리 등을 하여 정자를 처리하게 되면 운동성이 좋고 형태학적으로 건강한 정자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또 정자액중에서 임신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푸로스타글란딘 성분 등을 최소한 줄여서 임신하기에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.

이렇게 처리된 정자를 배양액과 섞어 가는 카테타를 이용하여 자궁 속이나 혹은 복강안에 때로는 나팔관안에 직접 주입해 줍니다.

정액은 인공수정을 하기로 계획된 날 남편과 함께 방문하여 받아주거나 혹은 집에서 미리 준비된

용기에 정액을 받아서 한 시간 내에 갖다 주면 됩니다.

인공수정은 전혀 통증도 없고 힘이 들지 않는 시술입니다. 과배란 약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임신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불임 치료 방법입니다.

**어떠한 경우에 인공수정을 할까?**

인공수정은 시술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첫 번째, 남편의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. 두 번째, 여성의 자궁경부에 감염이 있거나, 혹은 배란 시기에 점액상태가 빈약할 때. 세 번째, 면역학적으로 항정자 항체가 문제될 때. 네 번째, 불임의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계속 임신이 안되는 경우에 치료방법으로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**어떻게 시술을 받으면 임신이 잘될까?**

정자는 사정 후 48시간이 지나도 수정 능력이 있지만 배란 직후 12시간 이내가 수정 능력이 가장 좋습니다.

따라서 배란시기에 가장 근접하게 인공수정을 해야 임신이 잘 됩니다. 그러므로 배란시기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

배란은 자연 주기일 때는 질 초음파를 사용하여 난포가 16mm정도 되면 점액 상태 LH kit를 이용하여 미리 예견을 하는데 LH양성 후 12~24시간내에 인공수정합니다.

과배란 약제를 사용한 경우엔 HCG약제를 주사한 뒤 18시간과 42시간 후 두번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일산자생당 병원 0344)901-4000